

하늘 사랑

March 2021
vol. 477

3

cover story
얼음 생명을 품다
2010년 기상기후 사진전 <입선> 인경호





Weather Talk

- 08 마음을 다친 이가 보내는 흑독한 겨울: 맨체스터 바이 더 씨
- 10 빛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 12 하늘에서 넘실대는 파도 구름, 켈빈-헬름홀츠파를 아시나요?
- 14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사회
- 16 기상청 유튜브 채널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까?

Theme Story

- 18 봄바람 불 때, 하얀 눈꽃을 피우는 우리나라 최동단 울릉도
- 20 우리말 날씨이야기
- 22 날씨와 골프의 궁합 맞추기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세계기상의 날, 61주년 기념
World Meteorological Day

‘해양, 우리의 기후 그리고 날씨’



기획조정관실

매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의 날’로 세계기상기구 창설 협약 발효일(1950.3.23.)을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세계기상의 날에는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기후·날씨·물과 관련된 주제가 정해진다.
올해는 ‘해양, 우리의 기후 그리고 날씨(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가 그 주제로,
‘해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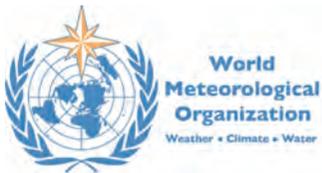


2020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미래의 우리 기후는, 송은식



2020 기상기후사진전 <은상> 구름모자 쓴 독도, 우태하

| 세계기상기구와 기상청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기후 분야의 UN 산하 전문기구로 1951년에 설립되어 현재 193개 회원국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195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래 지난 10여 년간 세계기상기구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집행기구인 집행이사직을 유지하며, 세계기상기구 주요 활동을 통해 국제기상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과거에는 기상기술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어느덧 공여국으로서 기상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기상기술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집행이사회, 기술위원회 등 세계 기상기구 주관 회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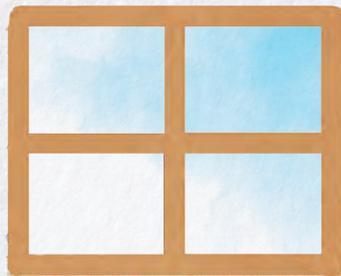
‘리’가 상실의 슬픔에 뒤늦게 휩싸인다고 해서 영화 내내 폭설이 내리거나 흑한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무심한 듯 인물의 곁에 머물기를 택한다.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도 한밤중 냉장고를 열었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마음이 아파오는, 매사 무뎡뎡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못 버티겠다.”라고 간신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곁을 영화의 시선은 떠날 줄을 모른다.

‘리’가 손 봐주러 온 어느 집에서 집주인인 노인이 ‘리’가 캔들러 가의 아들임을 알아보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다. “어느 날 출항하셨는데 평범한 날씨에 대단한 사건도 없이 그냥 돌아오질 않으셨지. 구조 신호도 무전도 없었고 어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라.” 생각해 보면 나 이제 죽을 거라고 예고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삶을 통째로 뒤흔들 대사건도 아무런 징조도 신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곤 한다.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이야기는 인물의 내면 변화를 날씨의 흐름처럼 관찰한다. 예측은 자주 어긋나고 영화 안에는 가끔 예기치 않은 유머까지 도사리고 있다. 소중한 사람의 상실을 두고도 밥이 넘어가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격랑의 순간에도 일어설 방법을 찾는, 그런 게 곧 인생일까.

상영시간 내내 한겨울인 영화에서 첫 장면이 과거의 어떤 여름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해 보인다. 겨울을 보내는 이들은 생각한다. 다시 여름이 찾아올까? 그 계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리’가 처음 치우던 눈은 거의 무릎까지 덮을 기세로 쌓여 있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많은 눈이 녹아 있다. 형의 장례식은 “땅이 녹을 때까지”로 유예되는데, 땅이 녹는다는 건 기온이 오른다는 것이며 그건 겨울의 문턱을 지나 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영화의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는다. 날씨가 풀려도 내면은 여전히 혹독한 추위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겨울 내내 앓던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 금세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리라고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말해주는 것 같다. 매 순간을 그저 버티기만 하는 것 같던 ‘리’는 언 땅이 녹을 무렵 조카 ‘패트릭’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린다. 사람의 마음에도 날씨처럼 어떤 순리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입춘이 지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여름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사회

강은지 동아일보 기자

“눈 온다면서.”, “눈 언제 내린대? 몇 시쯤인지 알 수 있나?”

입춘(立春)인 2월 3일 저녁,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괜한 불안감에 계속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이날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 등에 3~10cm 가량의 눈이 예보됐는데, 하필 눈이 내리는 시점이 퇴근 시간대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6일, 수도권 시민들이 겪은 ‘퇴근길 폭설’의 경험은 고스란히 ‘과연 오늘은 어떨지’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날 눈은 기상청의 예보대로 오후 5시 반경 시작됐다(광화문 사무실에서 관찰한 시점입니다.) 잠시 멈추고, 밤 9시경 평평 쏟아졌습니다.

유달리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은 이번 겨울은 역대 가장 따뜻했던 지난겨울과 많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많았습니다. ‘따뜻한 3월-쌀쌀한 4월’처럼 한 계절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랐고 여름에는 6월 평균기온이 7월 평균기온보다 높은 기온 역전 현상도 처음 벌어졌죠. 특히 기온 역전 현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기온)가 ‘역주행’하다니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난 만큼, 기상청 분들에게 낯설고 힘겨운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전망에서 폭염을 예측했다, 최장 장마 기간을 지내며 예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름을 겪은 세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22일 진행한 여름철 전망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날씨를 알면 골프를 잘 할 수 있다?

골프 하기 좋은 날씨는 언제일까? 우선은 맑은 날이며, 적절한 습도와 바람이 있는 날,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갖추려면 일 년 중에 제대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아주 심하게 비나 눈이 오거나 짙은 안개, 낙뢰가 발생하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날씨 상황을 좀 더 살피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실외에서의 골프를 잘 즐길 수 있다.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활용하면 골프장 주변의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습도 등의 다양한 날씨 정보를 알 수 있고, 레이더와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과 비가 언제 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골프장 홀별 코스 정보 앱을 통해 샷 방향, 추천 클럽, 주의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앱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 드라이버(driver): 먼 거리로 공을 치고자 할 때 쓰는 골프채
3. 퍼팅(putting): 그린 위에서 컵을 향하여 공을 침 또는 그런 동작
4. 스윙(swing): 골프채를 올려치듯이 휘두르는 일 또는 그런 방법

가까운 시일 내에 라운딩을 계획한다면, 우선 라운딩 예정일 이전부터 골프장의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날씨에 알맞은 장비와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운딩 당일에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으로 골프장 주변의 날씨를 수시로 찾아보면서 상황에 따라 알맞은 드라이버²를 선택하거나 퍼팅³하는 방법, 스윙⁴기술 등을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골프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Miloslav Belorid**
제주도 한라산의 겨울과
제주 녹차밭의 봄이 공존하는 오늘이네요.

📷 **이현정**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 혼잡을 걱정하며 도착한
버스정류장에서, 양중맞은 눈오리를 만났습니다.



📷 **최은숙**
에메랄드빛 바다의 아름다움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봄날만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 **서희정**
햇무리가 보여 조만간 비가 오려나 싶었는데, 3일 뒤에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